

■ 되돌아본 '광주의 2014 승격드라마'

첼린지 최소 실점이
'광주 돌풍' 이끌었다

2014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주인공은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였지만 감독 드라마의 완결판을 엮어낸 건 첼린지(2부리그) 시민구단 광주FC였다.

당시 광주는 온갖 화제의 중심이었다. 첼린지 정규리그를 4위로 마친 광주의 승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오히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릴 수밖에 없었다. 가진 게 없었다. 어려운 살림살이로 이렇다할 스타플레이어 하나 보유하지 못한 광주는 객관적인 전력상 약체에 가까웠다. 2013년 9월 여법규 감독의 뒤를 이어 1년간 광주를 이끌어온 남기일 감독대행이 손에 쥔 무기는 오직 '팀'이었다. 정규리그 내내 "크게 쳐도 좋다. 다만 매 경기 한 가지씩 발전한 모습을 보이지"고 제자들에게 주문했다. 그의 접근방식은 옳았다. 전반기 대부분 시간을 첼린지 8위(전체 10개 팀)에 머물던 광주는 9월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꾸준히 3~5위권을 오가더니 급기야 4위로 실낱같은 승격 기회를 얻었다. 작은 실점이 큰 도움이 됐다. 첼린지 1위로 자동 승격한 대전 시티즌(36실점)보다 1골 적은 35골을 내뒀다.

그렇게 정규리그 최소실점 팀이 된 광주의 돌풍은 첼린지 준플레이오프(준PO)부터 시작됐다. 하위팀에 '무승부=탈락' 공식이 적용된 준PO와 PO에서 광주는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역시 수비의 힘이 컸다. 3위 강원FC와의 원정에서 1-0으로 이기더니 2위 안산 경찰청에도 후반 3골을 몰아쳐 3-0 대승을 일궜다. 이어진 운명의 승강 PO. 파죽지세 흐름을 탄 광주를 뚜렷한 하향세의 경남FC(클래식 11위)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광주는 홈1차전에서 3-1 승리한 뒤 원정 2차전에서 1-1로 비겨 마침내 클래식에 당당히 진입했다. 올 시즌 클래식 도전을 앞두고 정식 사령탑에 선임된 남 감독은 "클래식 11위권 팀을 꾸준히 살렸다. 단판승부는 긴장감이 크지만 그만큼 분위기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털어놨다.

광주는 클래식에 복귀한 올 시즌도 선전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로 홈 구장을 쓸 수 없는 초반 불리한 여건을 딛고 한 때 2위까지 오르는 등 충분한 희망을 보였고, 결국 10월들어 일찌감치 잔류를 확정했다. 비록 스플릿라운드 상위리그 진입은 실패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광주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성과였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울산 조영철, 상주 상무 입단

이우희·이경렬·박수창 등 18명 최종합격



전 국가대표 공격수 조영철(26·울산·사진)이 상주 상무에 입단한다.

국군체육부대는 25일, 2016년 정기 국군대표 축구 부문 최종 합격자 18명을 발표했다. 조영철은 박희성(25·서울)과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주목을 받아온 조영철은 20세 이하(U-20) 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거쳤다. 지난 1월에는 호주에서 열린 2015아시안컵 오만전에서 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난 여름 카타르 SC와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에 입단한 그는 상주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 수비수 이우희(27)와 부산 수비수 이경렬(27), 제주 공격수 박수창(26) 등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상주는 올해 K리그 첼린지(2부리그) 1위를 차지해 내년 시즌 클래식(1부리그)에서 뛰는 이번엔 선발된 선수들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육군훈련소로 입소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FIFA 윤리위 '플라티니 영구 자격정지' 검토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가 미셸 플라티니(프랑스)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의 영구 자격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25일(한국시간) 플라티니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플라티니 회장의 영구 자격정지 처분 가능성을 보도했다.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 2011년 제프 블래터(스위스) FIFA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 프랑(약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90일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윤리위원회는 다음달 플라티니 회장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영구 자격정지가 확정될 경우 플라티니 회장은 내년 2월로 예정된 FIFA 회장 선거 출마는 물론 모든 축구 관련 활동에 나설 수 없다. 플라티니의 변호사인 티보 아레스는 "영구 추방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윤리위원회의 행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문식 대전감독 "강등 내 탕…다시 도전"

사커 피플

시즌 중간 선수단 물갈이로 반전 시도
조급함에 실패했지만 선수들 성장 확인
안정된 수비력 갖춰 '클래식 복귀' 준비



"언젠가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막상 맞으니 따끔하네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클래식(1부리그) 대전 시티즌은 2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37라운드 홈경기에서 0-2로 패배, 4승7무28패(승점 19)로 남은 1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2016년 첼린지(2부리그) 강등을 확정했다. 2014시즌 첼린지 우승과 함께 승격의 기쁨을 맛본지 한 시즌만에 다시 강등이 결정됐다.

대전은 시즌 초부터 끝 모를 추락을 거듭했다. 반전을 위해 지난 5월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였던 최문식(44·사진) 감독을 영입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뭉가 해볼 틈이 없었다. 나름 성공적인 이력을 써 내려가던 최 감독에게도 지독한 아픔이었다. 프로 사령탑 데뷔 첫 시즌, 정확히 말하면 불과 6개월여 만에 경험한 참담함이었다. 25일 "전부 내 탓

이다. 뭉가 결실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함이 앞섰다"며 올 시즌을 되돌아본 그는 "내성을 키워 당당하게 클래식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기대이하의 결과다.

"막상 (강등을) 경험하니 좀 아프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다. 현실적으로 봐야 했는데 지나치게 이상적인 부분을 봤다. 시즌 중간에 선수단을 대거 물갈이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운가.

"좋은 축구를 하고 싶었다. 보기 좋은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생각했다. 그러나 팀 성격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반부터 너무 격차가 벌어져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함이 생겼다. 기술도 좋지않 피지컬과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축구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절감했다."

-큰 폭의 변화가 독이었을까.

"뿌리 깊은 패배의식을 떨쳐야 했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여가야 했다. 마지막 힘이 부족했다. 전북현대 수원삼성 등

상위팀과 경기를 했을 때는 특히 안정이 필요했다.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차츰 변화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최 감독은 부임하면서 "대전을 FC바르셀로나(스페인)처럼 매력적인 팀으로 바꾸겠다"는 이상을 전했다. 그러나 무리였다. 질 때 적어도 0-3이 아닌, 2-3까지 따라붙는 팀 컬러는 생겼으나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희망도 찾았을 텐데.

"10월 들어 2연승을 하는 등 분명 달라지는 모습이 엿보였다. 물론 앞선 경기들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을 뿐, 내용은 행진 경우가 많았다. 이렇스레 조급함을 버렸어야 했는데… 승점을 추가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지만 우리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새 시즌 대비가 중요해졌다.

"체력이 뒷받침되고 뒀문이 목직해지면 대전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 겨울이적시장 때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팀을 꾸리려 한다. 수비진 보강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적인 요소는 먼저 팀의 골격을 완성시킨 뒤 조금씩 살을 붙여가도 늦지 않다."

대전은 올 시즌 37경기에서 31골을 넣고 70실점을 했다. 경기당 1골도 넣지 못한 반면, 실점은 2배 이상이다. 11위 부산 아이파

크(승점 26)를 목표로 한창 생존의 희망을 부풀릴 때도 최대 아킬레스건은 지나치게 허약한 뒀문이었다. 쉽게 골을 내주고, 어렵게 따라붙는 경기들이 되풀이되면서 대전은 탄력을 잃어갔고 '이도저도 아닌' 팀이 돼 버렸다.

-첼린지에 맞는 팀, 클래식에 어울리는 팀은 다른데.

"일단 길게 내다보고 싶다. 황인범, 서명원 등 젊은 친구들이 한 단계 성장한 과정을 보면서 1년 후에는 더욱 큰 선수가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다. 꾸준히 뛰어들어 성장해 과실을 맺는 포항 스틸러스 유스도 그렇게 키웠다. 마음이야 당장 큰 선수를 사들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철두철미한 선수 보강 작업과 알찬 동계훈련이 병행되면 다시 올라서고, 그 이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팀이 될 수 있다."

-첼린지에서는 어떤 팀으로 바꿀까.

"당초 '골을 많이 넣는' 팀을 만들고자 했다. 지금은 조금 방향을 수정했다. 먼저 골을 덜 내줘야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안정된 수비력을 갖추되, 보다 두드러지는 팀으로 바뀌길 생각한다. (팬들도) 좀 더 인내하며 달라질 우리 모습을 기대해줬으면 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메시·수아레스 4골 2도움
바르샤, AS로마 꺾고 16강

바르셀로나FC(스페인) 리오넬 메시(28)가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변함없는 클래스를 자랑했다.

메시는 25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벌어진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E조 5차전 AS로마(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2골·1도움으로 맹활약해 팀의 6-1 대승을 견인했다. 9월 무릎 부상을 입어 약 2달을 쉬 메시는 지난 22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그라운드에서 복귀했다. 당시 후반 교체 멤버로 나서 실전감각을 조율한 메시는 3일 뒤인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해 화려하게 복귀했다. 수아레스, 네이마르와 삼각편대를 이뤄 1-0으로 앞선 전반 18분 추가골을 터트렸다. 후반 11분 파케의 추가골을 도운 메시는 4분 뒤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다.

메시와 수아레스(2골·1도움)가 4골·2도움을 합작한 바르셀로나는 4승1무(승점13)로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AS로마는 1승2무2패(승점5)로 2위를 지켰다.

F조의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아스널(잉글랜드)은 나란히 승점3을 챙겼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림피아코스(그리스)를 4-0으로 꺾어 4승1패(승점 12)로 16강에 합류했다. 다나모 자그레브(크로아티아)를 3-0으로 완파한 아스널은 2승3패(승점6)로 3위를 유지했다. 아스널은 2위 올림피아코스(3승2패·승점9)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기면 16강 진출이 가능하다.

G조 첼시(잉글랜드)는 마카비 텔아비브(이스라엘) 원정에서 4-0으로 승리해 3승1무1패로 조 선두에 나섰다. 리그에서 4승2무7패(15위)로 극도로 부진한 첼시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강세를 이어갔다.

최용식 기자 gtyong@donga.com



바르셀로나 메시(오른쪽)가 25일(한국시간)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E조 5차전 AS로마전에서 전반 18분 상대 골키퍼를 따돌리고 골을 터뜨리고 있다. 홈 캄프 누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메시는 2골·1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AP뉴시스

평균관중 8만475명…도르트문트 팬들이 돌아온 이유

■ 할로 분데스리가

"내가 당장 실직한다 하더라도 오늘 난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볼 것이다."

도르트문트 시내에서 만난 한 열혈 팬의 말이다. 다소 과장된 발언이었지만 도르트문트 시민이라면 정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인구는 채 60만명도 되지 않지만 도르트문트는 평균관중(2014~2015시즌) 8만475명(분데스리가 평균 4만 3534명)을 기록한 '축구의 도시'다. 여러 나라에 충성도가 강한 팬들이 있지만, 유독 도르트문트는 그 중에서도 팀과 팬 사이에 유대관계가 끈끈하다고 볼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1900년대 전후에 시작된 광산업으로 발달한 도시다. 1960년대 이후 광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경제도 가라앉았다. 현재 구조개혁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평균 실업률이 2014년 기준 12.8%(독일평균 6.7%)로 경제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도르트문트 구단 또한 2004년 찾아온 재정 위기로 파산위기를 겪었다. 순식간에 구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당시 현지 언론은 '무리한 스타선수 영입과 스타디움 확장을 거듭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접어들었다. 과거의 영광이 그들을 오만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과도한 지출에 대해 비판했

다. 팬의 30%가량이 변심했고, 스폰서 및 투자자 모두 물러나며 구단의 존속위기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위기 속의 구단을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먼저 프런트의 경영 전략이 빛을 발했다. TV 중계권과 광고로 그리고 스폰서로부터 오는 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해나감에 재정 문제를 해결했고, 지역선수들을 육성함으로써 홈팬들의 마음을 뒤흔었다. 홈구장을 공격적으로 더 증축해 8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도 성공요인 중 하나다.

아울러 도르트문트만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새 슬로건을 만들었다. 'Echt

Liebe', 독일어로 '진정한 사랑'이란 뜻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슬로건으로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다. 현재 도르트문트 구단 공식가입회원 수는 13만명(분데스리가 기준 전체 3위)을 넘어섰다. 2008~2009시즌 사령탑으로 부임한 위르겐 클롭(48·리버풀)의 업적(리그 2회 우승, 포탈 우승,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은 분데스리가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 도르트문트가 명문구단임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마르코 로이스(26), 카가와 신지(26)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육성해내면서 세계적 구단으로 재부상했다. 그리고 팬들은 그런 도르트문트의 회노예락을 함께하며 더 끈끈하고 진정한 사랑(Echt Liebe)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도르트문트(독일) | 윤영선 통신원